Yullin Newsletter

JUN. 6

열린교회 신문 2022.6 ***vol.324***

말씀솔루션

금보다 더, 꿀보다 더

시편 19편은 가장 애송되고 있는 시편들 가운데 하나로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말씀의 효능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성경 구절 속에서 말씀의 효능이 일곱 가지나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며, 또한 지혜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우리를 밝게 하며, 영원으로 인도하고, 사랑하게 하며, 만족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순금보다도 더 사모하여야 하며,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고백이 뒤를 잇습니다.

시인은 말씀을 순금보다도 사모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가장 소중한 것의 상징입니다. 금은 고대로부터 불변하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순금은 모든 금 중에 순도가 가장 높은 금으로서 값비싼 것이며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보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 금을 사모하였던 것은 동서고금에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금을 얼마나 갖고 싶어 하는지 그 욕망이 얼마나 크기에 때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 욕망을 위해서 버리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또한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송이꿀은 채집하기 전 벌집에 가득 차 있는 형태의 꿀입니다. 3000년 전의 문맥으로 돌아가면 꿀에서 경험한 그 단맛의 미각이 사람들을 얼마나 크게 압도했는가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기쁨이 없는 건조한 삶을 살아본 사람들은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말씀의 미각이 아주 뛰어나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주일은 영혼의 장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부요하게 하실까 가슴이 들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기름진 양식을 더할 때에는 패잔병처럼 왔던 우리가 용사처럼 변하여 주어진 삶의 상황을 끌어안고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영혼의 미각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순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말씀의 미각을 회복하고 진리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의 능력〉 시리즈 중에서

(본 시리즈는 영혼을 소성시킴/인간을 지혜롭게 함/마음을 기쁘게 함/눈을 밝게 함/경외하게 하는 말씀/진실하고 의로운 말씀/말씀의 능력 7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
발행인 김남준
편집인 진광희
편집부 열린교회행정센터
편집주간 류요한
디자인 디자인집 02-521-1474
주소 1405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31
전화 1661-4372
팩스 (031)421-9411
e-mail yullin@yullin.org
URL www.yullin.org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10월에 방배동 예배당으로, 2002년 4월에는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의 비전은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 참된 목양, 체계적인 양육과 훈련을 통해 참된 신자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열린교회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3장 7절~8절에 근거한 것으로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늘을 열어 주신 교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Yullin Newsletter>는 8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의 <열린신문> 코너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2로 제보 바랍니다.

열린교회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김남준 담임목사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전 9:1-4)

인간의 현실

전도서를 쓴 지혜자는 인간의 삶을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산다는 것 자체가 괴로운 일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미래는 불확실하고,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든 인간은 죽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자는 금과 은을 원 없이 소유했으며, 지혜에서도 뛰어났습니다. 또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으며, 자기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2:8-10). 이렇게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지혜자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어나 지금보다 더 잘살아 보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근심하고 수고합니다. 지혜자는 그 근심과 수고도 아무 소득이 없으며, 슬픔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2:22-23).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산다는 것 자체가 괴로운 일이고, 애써본들 헛되고 헛되다면 지혜자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하늘을 생각함

첫째로, 하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과 대지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하늘나라(heaven)를, 대지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현실을 가리킵니다. 이 둘은 다른 세계이지만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 하나만 취하여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더 이상 하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는가?',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물질적인 풍요와 개인적인 평안함에만 관심을 둡니다.

현대는 허무주의가 휩쓸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의미가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허무주의에 삼켜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높은 지위를 얻고,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인생을 가득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허무와 불안을 일시적으로 달랠 뿐입니다. 허무와 불안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목적이 있는 삶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목적 있게 지으셨습니다. 피조물에도 각각 고유한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따라 살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묻고 답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허무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때때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볼 때 인간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 창조주 앞에 답해야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

대지를 생각함

둘째로, 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늘은 삶의 목적을 말해주지만, 우리가 두 발을 디딘 채 사는 곳은 대지입니다. 하늘은 영원하고 불변하지만, 대지는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며 변화합니다. 그러한 대지에서 살다 보면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생기고,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기쁜 순간은 적고, 슬픈 순간은 많아서 살아있다는 것은 슬픈 일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더군다나 공평과 정의의 법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실도 많습니다. 악인은 마지막까지 평안을 누리고 죽어 가는가 하면, 의로운 사람은 살아서도 고통을 당하고 죽을 때조차도 평안하게 눈을 감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대지 위에서의 삶은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개되는 삶의 상황에 대해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지 위에서의 삶이 우리의 기대대로 흘러간다면 우리에게 신앙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인간사 모든 세월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베풀어지는 일입니다. 어려움과 고통, 심지어는 형통함과 행복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담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금과 은을 원 없이 갖고
> 세상 모든 것을 누리고
> 마음껏 경험했던 지혜자의 고백은
> "모두 헛되며 무익한 것이라…"
>
> 하늘을 생각하며
> 각자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기억하고
> 대지를 생각하며
> 두 발로 디딘 현실과 조율하며
>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 누리며 살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현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지에서 누리는 기쁨

지혜자는 세상이 헛되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세상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늘은 대지보다 완전한 곳이지만, 대지에서 누리는 기쁨은 여기에서만 누릴 수 있는 고유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전 9:9).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며 오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지 않은 미래를 염려하며 오늘을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좋은 것을 보고, 듣고, 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며 사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행복을 갈망하지만, 그것은 결코 보석을 손에 쥐듯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오늘 하루 아침햇살에 눈을 뜨고, 한낮에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고, 한 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운 나의 일을 할 수 있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살아 있기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전 9:4).

맺는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고유한 인생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을 따라 살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괴로운 날이 많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에서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며 사십시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전 3:22).

담임목사 동정

6.5 교회학교 부장부감 간담회
6.6-17 미국일정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한국어목회학 박사과정 특강)
6.18 수석부목사 및 당회 수련회
6.19 새가족환영축제
6.20-23 교역자부부수련회
6.27-29 직원수련회

라디오 설교방송

- 서울기독교방송 (FM 98.1MHz)
  금요일 오후 9시 30분 '라디오 강단'
- 서울극동방송(FM 106.9MHz)
  금요일 오후 3시 45분 '오후의 기쁨'
- 대전극동방송(FM 93.3MHz)
  주일 오후 4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
- 포항극동방송(FM 90.3MHz)
  월요일 오전 6시 30분 '오늘의 양식'
- 울산 극동방송(FM 107.3MHz)
  목요일 오전 6시 '참된 삶을 향하여'
- 창원극동방송(FM 92.5MHz)
  화요일 오전 6시 30분 '오직 복음으로'
- 전북극동방송(FM 91.1MHz)
  월요일 오전 6시 30분 '세상을 향한 한주의 시작'
- 전남극동방송(FM 97.5MHz)
  금요일 오전 10시30분 '은혜의 강가로'

인터넷 설교방송

- 극동방송(대전, 포항, 울산, 창원) http://www.febc.net

청소년학부모교실 후기

나는 지금 아하와 강가에 서 있습니다

나은경 중등부 교사
eworld0925@daum.net

저는 올해 중등부 교사가 되었습니다. 4개월 동안 많은 섬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에서 일상을 찾아가는 올해는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로 청소년 학부모 교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 전도사님께서 공지하셨을 때 이미 저는 스태프로 자원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교실이 열리는 날, 한 시간 전에 가서 테이블도 세팅하고 소독과 명단 체크와 간식과 유인물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첫날이라 그런지 제가 더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원만 하고 안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갑자기 일정이 생겨서 참석을 못 하셨겠지요. 그런데 이 상황 때문에 저에게 큰 복이 임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요.

저는 중등부 교사이며, 고3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다만 제 아이가 고3이다 보니 이번 학부모교실이 저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다 자란 상태라고 제가 정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테이블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인즉, 자리를 메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부감 선생님께서 저에게 스태프가 아닌 학부모로 참여하라 했지만 제 마음에서는 불신이 있었습니다. 이 교육이 저에게는 하나도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저에게 무조건 참석해야겠다는 마음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제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착실한 성격의 소유자라 전도사님께서 보내주신 담임목사님 설교와 저서를 열심히 듣고 읽었습니다. 설교는 <믿음의 가정> 시리즈 중에서 선택된 설교들이었습니다. 첫날 '최고의 자녀 사랑' 설교를 들었습니다. 정확히 시간도 기억납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충격의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1시간 15분의 설교 중에서 1시간을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담임목사님의 책에 나왔던 '참척'의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참척이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너무 울어서 나중에는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름 아이들을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의 말씀은 저를 후려쳤습니다. 무엇 하나 잘한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했을 때 엄청난 비극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1시간 동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4). 과거 노엽게 한다는 것은 분노하게나 화나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말씀은 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들이 부모로 말미암아 마음에 상처를 받고 억눌리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회개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나도 똑같이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에 생채기를 냈던 것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억누르기를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무지로 인해 너무도 무서운 일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음으로는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편의 설교를 통해서 나의 무지를 알게 하여 지성을 열어주셨다면 <아이야 엄마가 널 위해 기도할게> 책을 통해서는 이제부터 내 아이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적용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좋은 내용이 많이 있었지만 저는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실행했던 것을 저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잘 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한 번 도전하려 합니다.

에스라가 행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생활 70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그들에게는 기쁨도 잠시 돌아갈 동안에 겪게 될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는 아하와 강가에 다다랐습니다. 이 때 에스라는 3가지 일을 하는데요. 정말 저에게 너무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첫째, 금식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금식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금식하는 체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다고 해도 한 끼 정도였지 절대로 하루를 해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간절하고 힘든 일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교만했던 것이겠지요. 책에서는 금식의 본질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금식은 고생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의 시간을 가지라는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섰습니다. '겸비'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치를 추호도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비참함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상태라 합니다. 겸비와 절망의 차이점은 자신의 비참함에 빠져 절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참함 때문에 더욱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절망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면 이제는 겸비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아갈 겁니다.

셋째, 간구합니다. 금식이 하나님을 향한 지성의 집중을 불러일으키는 도구가 된다면 겸비함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울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지성과 마음의 상태 이후에 드리는 간구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도움을 구하며 자기의 소원을 토해 놓는 기도라 쓰여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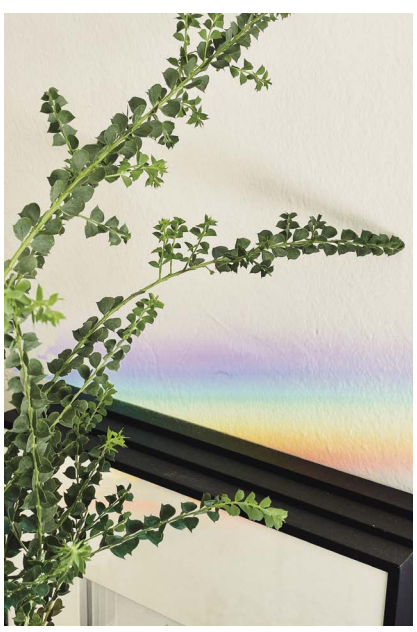
덧붙여 목사님도 똑같이 자녀를 키우면서 힘들었으며, 그 안에서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사실이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내 삶에 더 자주 나타나 주셨습니다. 결코 나의 연약이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하나님 은혜가 기대됩니다. 하루하루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려는 저에게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6월 추천도서

교회를 아는 지식 우병훈 / 복있는사람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많이 쏟아지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된 답변을 주기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교회론은 기독교의 수많은 교리가 한데 엮여서 나타나는 최종 결과물이다. 그렇기에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흔들리는 시대에 교회론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참된 교회론은 성경과 위대한 전통에 뿌리를 내린다. 특히 이 책은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집중하되, 이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삼위일체 신학을 제시한다. 성부 하나님의 백성, 성자 예수님의 몸, 성령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삼위일체적 교회론을 살피면서 교회의 표지와 속성이 그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구성되어 있다…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한 영광스러운 제도이며 직무다. 이 책은 직분에 관한 신구약 전체에 담긴 풍부한 가르침과 교회사적 흔적을 살펴보는 가운데 직분의 기원과 자격과 역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대적인 이해를 돕는다.(인터넷 교보문고)



포토에세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로마서 15장 4절

사진 : 김범무(장년6교구)

교사/학부모세미나 후기

기도와 이론을 겸비한 교사가 되기 위하여

김선희 고등부 교사
jymom1125@hanmail.net

대학 입학과 동시에 30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로 섬겨 오면서, 많은 학부모님들을 대하며 '나는 저 성도님과 같은 부모가 되고 싶다.' 또는 '나는 저 집사님과 같은 부모는 절대 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교회 중등부 시절부터 함께 신앙생활 해 온 남편과 결혼하여 딸 하나, 아들 하나 남매를 낳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열린교회에 온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고2 아들이 소속되어 있는 고등부의 고3 담임으로 여러 아이들의 삶을 공유하는 섬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명희 사모님의 자녀교육 지침과 박에스더 원장님의 옥타그노시스 검사에 기반한 성향 교육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설계도'라는 강의를 들으며 다시 한번 자녀들과 제가 맡고 있는 우리반 학생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모님의 믿음의 어머니로서 꿋꿋이 그 자리를 지켜내신 자녀교육 경험담은 웃음과 울음을 섞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감동과 배움의 자리였습니다. 지금의 열린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 또한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도 기도의 자리를 인내로 지켜 왔던 사모님의 역할이 컸겠구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이 핵심이었지만, 더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사랑이었습니다. 남편이 자녀들을 훈계할 때 왠지 모르게 속상하고 내 영역에 대한 침범 같고 나의 양육 패턴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보일 때 부부싸움을 종종 했던 것이 사모님의 경험뿐만 아니라 저 또한 경험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남편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앞서야 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권위자로서 진실로 존중해야 했으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돕는 배필로서의 온전한 자리인식을 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깨달음을 알게 하신 이후 자녀양육에 대한 바른 교육과 가정의 화합이 더 이루어진 것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감동적이었으며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사랑과 계획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자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법이 없으며, 믿어 주고 기다려 주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또한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들과 내가 섬기고 있는 학생들을 진심으로 믿어 주고 기다려 줘야 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아이들에 대한 성향 파악이 우선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박에스더 원장님 교육을 통해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성향을 파악하고 그 성향에 맞게 아이들을 이해해 주며, 더 나아가 그 성향대로 끌어준다면 좋은 부모,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그저 사춘기적 행동이라고만 밀어붙이고 때로는 화를 내며 통제했고, 무시하며 이해하는 척했던 행동들이 성향 파악과 성향 존중이 되지 않은 무지의 결과라는 것을 생각하며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공지사항 문자 하나를 보내 놓아도 바로 답하며 자신의 상황을 상세히 전달해 주는 학생부터, 3일 뒤 '네'라는 한 음절로 답하는 학생까지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교사로서,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며 기도하라는 메시지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음을 믿고 바라보며 그 설계도가 선명하게 보여질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이자 부모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더욱 생겨났습니다.

다른 공부는 열심히 하면서도 좋은 교사,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해왔던 날들을 반성하며, 전문가까지는 아니어도 그 비슷한 정도까지는 노력하며, 실천하며 살아내야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중고등부 시절 나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상담해 주셨던 은사님과 지금까지 연락하며 만나고 살고 있는 은혜를 누리면서 결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렬히 기도하는 바탕 위에 실제적 이론을 겸비한 준전문가적 교사와 부모가 될 것을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오늘도 달려가 보겠습니다!

태아부예비맘스쿨 후기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이새봄 장년3교구
mutou423@naver.com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 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9).

지금까지의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한 시간표대로 이끄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른 이들과는 다른, 오로지 저만을 향한 시간표를 세우시고 그것을 따라 제가 한걸음 한걸음 잘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에게 결혼과 임신은 그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기회였지요.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배웠고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끌어주신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저희에게 건강한 새 생명이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동안 이미 2번의 유산을 겪었던 지라 조심스러웠고 또 조심스러웠지만,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잘 견뎌냈기에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기쁨의 선물로 주신 것 같아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의 태명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고 지었어요.

2022년 4월, 기쁨이로 인해 그렇게 고대하던 태아부 예비맘스쿨을 듣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이기에 비대면 강의로 총 4주간 진행되었고 매 주마다 전도사님의 설교와 다양한 특강, 지체들의 나눔, 함께하는 잠언 필사, 그리고 열심히 섬겨주시는 섬김이 집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 새 생명을 품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도제목은 늘 '임신'이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 것, 그것만을 위해 기도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 이후의 삶, 즉 부모로서의 삶에 대해서도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좋은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더군요. 이런 저에게 태아부 예비맘스쿨은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해준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에 있었던 자기소개 시간에서 주어진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가' 였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는 추상적인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 또한 그 사랑을 닮아 우리 아이에게 그러한 부모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한없는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처럼 말이지요.

태아부를 통해 다시 읽게 된 책 <가정 또 하나의 천국>에서도 자녀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의 첫째가 바로 자녀를 존재만으로 기뻐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처럼 저 또한 우리 아이를 그렇게 인격적인 사랑으로 키우고 싶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기에, 저 같은 사람이 부모가 되어도 되는지 한동안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의 깊은 뿌리에는 저 스스로의 힘만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했던 오만이 자리 잡고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도사님의 설교와 '태아기 부모역할'에 대한 특강을 들으면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해주신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의 진정한 부모 되신 하나님께 물으며 키워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니 하나님께 물으며 키워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진대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두려울 수밖에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의 인격적인 부모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여 곧 세상의 빛을 볼 아이와 함께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시작을 태아부 예비맘스쿨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의 키가 커갈 때에 신앙의 키도 함께 자랄 수 있도록, 태아부에 이어 영아부, 유아부 등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성실히 양육하겠습니다.

<마흔통>세미나 후기

인생도화지 반 접힌 시기에 만난 세미나

최영지 장년1교구
rainbow3315@naver.com

담임목사님은 4월에 4번의 토요일마다 '마흔통' 세미나를 통해서 열린교회 40대 지체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 주차마다 '부부관계', '자녀관계', '부모관계', '성', '섬김', '인생', '늙어감', '생명', '돈', '친구', '과학기술', '직업', '사회생활', '용서', '장애', '미디어' 등 신앙인들이 삶에서 부딪히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 질문하고, 목사님께서 답변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앙의 선배로서 하나님 앞에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 치열한 고민과 성찰을 해 오신 목사님의 답변은 인생길을 뒤따라 가는 많은 40대들에게 명쾌한 이정표를 제시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편집부)

이번 마흔통 세미나에서는 4주간 각 주마다 40대 분들의 다양한 삶의 주제 가운데 던져지는 고민과 질문에 대해, 목사님께서 원론적이고 피상적인 답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오셨던 삶에 대한 고찰과 경험에서 풀어주시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1982년생이고 태어나서 살아온 시간이 올해로 딱 40년이 되었습니다. 천국으로의 부르심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80년 인생의 도화지를 반으로 접고 펼쳐본다면 저는 지금 접혀진 선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접어 펼친 도화지의 왼쪽 면은 제가 살아온 인생이 그려져 있지만, 아직 그려지지 않은 오른쪽 면의 시작을 배우기 위해 벚꽃이 활짝 개화한 4월의 첫째 토요일을 시작으로 4주간 마흔통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40대를 시작하시는 분, 40대 중반의 여정을 이어가시는 분, 40대를 마무리 하시는 분들의 다양한 삶 가운데 던

져지는 질문들이 '나도 언젠가는 겪을 일일 수도 있겠구나' 싶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경험해 본 질문들의 방안에 대해서는 '아! 내가 선택했던 그 방법이 자신 없었는데, 그래도 잘못된 건 아니었구나' 싶어 위안도 되었습니다.

'마흔'이라는 나이가 되면서 저에게 가장 큰 '통(痛)'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감내해야 할 몫의 무게였습니다. 자녀가 사춘기 시기로 접어들게 되면서 감정적으로 서로 격해지는 갈등이 생기게 되어 이전과는 다르게 이 아이를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청소년기는 '아직 불안한 정권의 나라 또는 정권이 없는 나라'이며 '울퉁불퉁한 벽면에 공을 때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스쿼시와 같다'고 알려주셨는데, 이 시기에 대한 세상의 다른 어떤 표현들보다 현재 자녀가 겪고 있는 감정 상태와 마음을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절대로 부모-자식 관계만큼은 깨지지 않아야 하고, 자식은 떠나는 배와 같아서 따라갈 수는 없지만 부모는 '세월이 지나도 항상 거기에 있더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항구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통해 끝까지 부모로서의 자리를 지켜야 함을 배웠습니다.

편찮으셔서 오랜 기간 와상상태로 병상에 계신 친정아버지와 간병하시는 친정어머니를 여러 상황 속에서 지켜드려야 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지 나의 한계를 냉정하게 판단하여 여기까지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섬기고,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괴로워도 선을 그어라"라는 목사님의 현실적인 조언은 갑갑해지고 있던 제 마음을 자유케 하였습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배우게 된 방안들을 저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적용하여 계획과 결심을 세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혼자서 끙끙 앓던 고민들도 현실적, 객관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용기 있게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성경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신앙의 모습을 배우기도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삶의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처음이어서 낯설게 느껴질 때면 저보다 앞서 행하셨고 경험해보신 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현실적인 삶의 방향과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어른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이번 마흔통 세미나를 통해 목사님께서 40대를 시작하는 저에게 이러한 어른이 되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40대 분들의 마흔통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어린이 도서관 재개관

- 위치 : 열린빌딩 2층 예빛라이브러리
- 운영시간 : 주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4시 30분
- 운영방법 : 열람 및 대출/반납

성령강림주일

6월 5일(주일)에 성령강림주일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매년 성령강림주일 헌금으로 해외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에게 담임목사님의 저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계좌 : 신한은행 140-009-997386 열린교회경상
-본인 표기 :
본인이름+헌금종류 첫자+성별+소속교구 /
김열린, 성령강림주일, 남성, 1교구 ->김열린성남1

특별 기도세미나

- 일시 : 6월 15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본관 3층 예배실
- 강사 :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
- 문의 : 김부덕 권사

6월 주요사역

5일(주일) 성령강림주일/PCM 헌금/교회학교 부장부감 간담회
15일(수) 특별 기도세미나
18일(토) 당회수련회
19일(주일) 새가족환영축제
20일(월)-22일(수) 상반기 교역자부부수련회
26일(주일) 정기 제직회/ 여름 사역을 위한 교사, 학부모기도회
27일(월)-29일(수) 상반기 직원수련회

새가족

▶▶ 장년

전형일(69) 유준호(71)
문수진(71) 강미진(65)
박영배(85) 박상현(85)
황애란(83) 박단비(85)
이상택(71) 김용민(86)
김희수(70) 문예인(86)
신인수(78) 김기용(83)
이주연(81) 박선명(88)

▶▶ 청년

김혜린(01)
김홍엽(97)
윤 솔(92)
이정연(02)
전시훈(02)
신상훈(89)
은 산(03)

열린이들 주차에티켓

❶ 행정실에서 발급받은 주차스티커를 차 앞 유리창에 부착해 주세요.

❷ 주일 10시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은 두산벤처다임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행정실에서 2시간 주차권을 드립니다.

❸ 그 외의 성도께서는 성지스타위드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반드시 정문(칼빈파크 쪽 말고 본관3층계단쪽 방향에 있는 출입구)으로 출입해 주세요.

❹ 열린빌딩, 세빛빌딩, 본관 정 후문 도로에는 (가족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지 마시고, 주차 구획 표시가 없는 차도 및 이중주차는 하지 말아 주세요.

❺ 주차장 내에서 어린이들 손을 꼭 잡아주시고, 안전을 위해 섬기는 주차위원의 안내를 잘 따라 주세요.

장애인주일 후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해요

남화용 청년부
nhy4916@gmail.com

우리 사랑부 아이들이 신나게 춤을 추며 찬양하고, 설교 말씀을 듣는 중간 전도사님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죠?"라는 질문에 "예수님!"이라고 답하는 모습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저의 마음이 기쁨에 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아이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단어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부모님들과 교역자, 교사분들의 무수한 사랑과 희생의 손길이 거쳐 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을 저는 사랑부에 오고 나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부터 사랑부 교사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부를 섬기게 된 계기는 제 동생 때문이었습니다. 제 동생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어릴 적 치료를 목적으로 잠시 가족이 인덕원으로 이사를 왔었습니다. 그때 열린교회에 사랑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7살이었던 제 동생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2년 정도 사랑부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동생은 지금도 사랑부에 대해 기억하고 있고, 사랑부에 관해 물어보면 어릴 때의 기억이 떠오르는지 웃으며 좋아하곤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겐 사랑부에서의 섬김이 특별하게 다가오게 되었고, 이후 상경해서 열린교회로 다시 찾아오게 되었을 때 사랑부를 섬기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제 마음속에 '과연 동생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동생과 함께 예배도 드려보고 같이 찬양도 해보았지만, 과연 동생이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랐지만,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성인의 때였는데, 과연 동생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을지 항상 의문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부를 섬기며 본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제 의문은 희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올해 사랑부 지체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한 것은 사랑부 지체들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과 사랑부 지체들이 성장하여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 기도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는 사랑부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부를 섬기던 시간을 돌아보면, 사랑부 친구들은 각각의 성향과 장애의 정도가 다르지만, 예배에서 부르는 찬양과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그리고 사랑부 교사분들의 공과시간을 통해 조금 더딜지라도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친구들의 삶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간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려 했던 모습도 반성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주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 아이들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며 저 자신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섬길 때 오히려 그 자신이 더 은혜를 받는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사랑부 교사를 통해 경험하게 하셨고 아직 믿음이 모자란 저를 깨우치셔서 다시 그리스도와 접붙인 삶을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사랑부를 통해 오히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애인주일 행사의 주제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해요"였습니다. 비록 준비 과정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기도로 마음을 모아 준비했습니다. 다들 아시듯, 작년 겨울에서 봄까지의 시간은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 팬데믹의 정점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기도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주일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촉박하고 인력도 부족했지만,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 끝에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힘들 때 감사했던 점은 이번 장애인 주일 행사와 맞물려 거리두기 정책도 완화되며 기존에 온라인으로 드렸던 친구들도 이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밝아지고 풍성해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이것 또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또 이번 행사에서는 2주 동안 기도 후원 부스를 진행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 도중 인식개선 패널을 보시고, 또 기도후원을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사랑부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부 지체들의 변화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길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주자(교역자칼럼)2

어버이날 단상

강성경 장년4교구 담당 전도사
bible0913@gmail.com

눈이 찌걱찌걱해.

눈이 찌걱찌걱한 게 뭐야? 시린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고? 그냥 안약 넣어 봐요.

그래.....

발목이 너무 시려.

겨울이니까 추워서 그렇지. 발목 위로 올라오는 긴 양말 신으면 되지.

그래.....

밤에 잠이 안 와.

오전에 하는 일 없이 낮잠 자서 그래요. 낮에 좀 더 움직여 봐요.

그래.....

팔이 안 올라가 너무 아파.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살 좀 빼고 운동 좀 하라니까.

그래.....

지금 내 나이의 엄마가 이십대의 나에게 늘 하시던 말들입니다. 그때의 나는 엄마의 말들의 의미를 전혀 몰랐고 또 알고 싶지도 않았던 그저 귀찮았던 말들입니다.

어느새 시간이 무심하게 흘러서 인공눈물을 수시로 넣어도 눈은 찌걱찌걱하기만 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양말을 위로 올려 신어도 발목은 기분 나쁘게 시리고, 피곤으로 몸이 녹아내릴 것 같지만 정신은 말똥말똥하여 불면으로 밤을 새는 날들의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어깨 통증으로 옷 갈아입는 일이 어려워져 병원에서 오십견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야 20여 년 전 엄마의 그 말들이 내 몸 구석구석에서 나의 말들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야만 알 수 있고, 알아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시간은 속절없이 이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냥 엄마의 말들을 들어주었으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래요? 엄마 힘들겠네' 위로해 드리면 되는 것이었는데, 남들에게는 그렇게도 잘하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와 반성의 마음은 시간과 함께 보내버리고 얼마 전, 낼모레 오십이 될 나는 칠순의 엄마에게 투정을 했습니다. 내가 힘든데 왜 내 마음을 더 알아주지 않느냐고. 왜 엄마는 더 엄마스럽지 않냐고 모진 말들을 문자로 보내며 엄마의 마음을 때렸습니다.

또 한 번의 5월을 맞아 가족 설교 시리즈를 들으며 생각합니다. 내가 보지 못했던 엄마의 시간과, 보고 함께 지나온 엄마의 시간들. 시골에서 가난한 집 막내로 태어나 배움이 짧았고, 어린 이십 대에 아무것도 없이 단칸방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어 3남매의 엄마가 되었고, 가장 아름다웠을 삼십 대에 애 셋을 먹이고 입히고 살아내느라 너무 힘들었겠구나. 교회와 집을 오가는 수많은 발걸음의 하루하루가 사십이 되고, 오십이 되고, 좋아하시는 꽃을 가꾸느라 옥상을 오르락내리락하던 다리가 한없이 가늘어진 칠순이 되셨구나. 자신의 고운 빛이 어디로 가버렸는지도 모른 채 그 세월 동안 엄마는 엄마가 되어갔겠구나.

육체의 겪음은 때가 되면 알게 되고 이해하고 후회와 반성이라도 할 수 있지만, 엄마가 되어 보지 않은 나는, 한 사람이 엄마가 되고 엄마로 살아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아마 이십 년이 지나 내 나이 칠순이 되어도 알 수 없을 겁니다. 겪어보아 아는 게 있어도 잘하지 못하는 내가, 아직도 이렇게 모르는데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래. 잘할 수 없다면 못할 짓은 하지 말자' 생각합니다.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나의 권리인 양 내가 너무 쉽게 하는 것, '무심한 말로 모진 말로 엄마의 마음을 때리지 말자. 어떤 분의 표현처럼 꽃으로도 엄마의 마음을 때리지 말자. 이미 수없이 멍들고 상처 난 엄마의 마음을 때리지 말자.'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엄마의 마음에 더 많은 사랑의 꽃을 달아드려 그 마음이 꽃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을 많이많이 허락해주시길 기도하며 어버이날을 보냅니다.

기도학교 후기

"내 딸아 괜찮다"

신현희 장년2교구
yebica@naver.com

이번 기도학교 4주간은 제 인생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시간이자 감격스런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랜 우울증으로 가라앉고 쳐지는 컨디션으로 종일 누워 지내던 삶이 반복되었습니다. 조금 나아지면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찾다가도 조금만 일이 생기면 냉큼 제자리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교회 상담과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가족과 지체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점차 회복되어 가던 차에 기도학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릴레이 섬김기도를 하고 있으니 기도생활에 도움이 되려니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빠지지 말자던 결심은 심한 몸살로 결석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는 코로나에 걸려 다시 불참. 이번에는 안 되나 보나 마음 접으며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5남매를 둔 엄마이기에 가정에서 쉰다는 건 게 쉽지 않았고 가족들의 불편함도 고려해 경기도 생활센터에 의뢰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곳에서의 일주일은 제 기도생활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간 가져본 적이 없는 홀로인 시간과 공간이 낯설었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창 밖으로 바깥공기를 느끼며 논밭 풍경을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TV도 없고 들리는 소리라고는 새소리, 바람소리가 전부였습니다. 늘 북적대며 분주하게 지내왔기에 뭘 해야 할지 막막했고 근육통과 피로감으로 까무룩 자다 깨기를 반복했지요. 그때 마침 조장님께서 수료는 어렵더라도 강의를 들으며 추스르면 좋겠다는 따스한 연락을 지속적으로 주셨기에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잠깐씩 깨어 컨디션이 나아지면서는 기도학교 강의를 듣기 시작했지요.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차근차근 풀어주신 최성기 목사님의 강의는 차분히 제 생각과 마음에 안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제로 주신 담임목사님의 말씀인 '언어와 기도', '심정을 토하는 기도', '성화와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나씩 들으며 차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게 무언지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늘 불안하고 안정되지 않아 고아같이 버려진 존재 같은 외로움에 시달렸는데, 몇 발자국 안 되는 방 안을 기어 다니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저를 만나 주시길 간절히 구하며 마음속 온갖 투정을 모조리 쏟아 놓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딸아 괜찮다"며 안아주시는 듯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친밀한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며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말씀과 강의를 두세 번씩 들으며 워크북에 필사하듯 빼곡히 적어 나갔으며 줄을 치며 읽고 그걸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조원의 기도 제목과 참회기도, 섬김기도 리스트를 보며 기도하는데 노트마다 눈물로 얼룩지며 적셔졌습니다. 하도 울어 눈은 퉁퉁 붓고 코끝이 벗겨졌지만 기뻤으며 점차 가뿐해짐을 느꼈습니다. 기도가 찬양이 되고 이내 찬양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 이후 한 달이 지나 이 글을 쓰는 시간까지 성전에 자주 엎드리며 그 워크북을 다시 펼칩니다. 시시때때로 예기치 못한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감사와 감격에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학교를 통해 많이 애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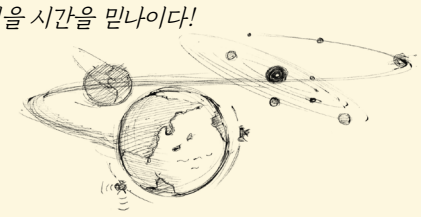
곰곰이 생각

그럴싸한 우상, 시간을 믿는 사람들

글 · 그림 : 나동훈
gomgom2@designzip.co.kr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믿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우주로부터 지금의 인간,
당신이 나왔다고 믿습니다.

과거의 긴 시간을 믿나이다!
언젠가 있었을 시간을 믿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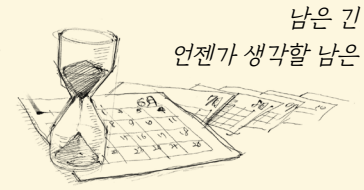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믿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지금의 인간, 당신이 죽고나면
더 뛰어난 존재가 나올 거라 믿습니다.

미래의 긴 시간을 믿나이다!
언젠가 찾아올 시간을 믿나이다!

혹시 당신도 시간을 믿고 있나요?
언젠가 시간이 생기면, 생각할 시간이 오면
'진짜 신앙'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지 않나요?
오지도 않은 '남은 시간'을 믿지는 않나요?

남은 긴 시간을 믿나이다!
언젠가 생각할 남은 시간을 믿나이다!



오늘도 우리는 그럴싸한 우상, 시간을 믿고 삽니다.
시간을 믿고 죽어갑니다.

열청캠프 후기

청년 고민의 개념과 예제에 함께 다가가다

남해연 청년부
jeons-gangdong@naver.com

저는 저 자신의 내적인 평안과 만족을 찾던 중 교회를 접하고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개인적인 경건생활로 만족했고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시기 동안 인간이 서로에게 질병을 옮고 옮기는 모습을 바라보며 인간 상호 간의 영향력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나아가 인간은 영적인 부분에서도 서로에게 밀접하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변화 속에서 코로나 시기 동안 지쳐있는 청년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순장 섬김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저 자신의 개인적인 성향들을 목양 속에 어떻게 변화시켜 가야 할지 답답함만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열청캠프가 '기독교와 정신건강'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는 소식이 들렸고, 청년부 공동체의 정신건강과 신앙의 증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을 배울 수 있겠다는 기대로 열청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혜성 원장님의 특강은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음 헤아리기'와 '관점 취하기'는 남을 탓하기에 익숙했던 저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을 균형 있게 살필 수 있는 지혜를 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결혼에 대한 엄마의 잔소리를 "결혼 적령기의 나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떠실까?"로 적용해 보며 엄마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과 타인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2부에서는 '성·정체성·경제·중독·관계·번아웃·시대정신·직업과 소명'에 대한 상황극으로 청년들의 구체적인 고민을 살펴보고 담임목사님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의 고민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년들의 고민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상황극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관점이 되어 앞서 배운 마음 헤아리기와 관점 취하기를 복습해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지는 목사님의 답변은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문제를 바라본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고민이 고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어떻게 삶의 문제, 시대의 가치를 바라보고 다루어 가야 할지를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1부의 강의가 개념이라면 2부는 예제를 풀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열청캠프가 단순히 좋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내용을 경건의 도구로 삼아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힘들어하는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자라가고,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신자로 자라야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만남 품은 열린교인

인생의 방황은 끝났습니다

이계상 장년4교구
ks4668@kia.com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30~4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인 시골교회에서 주일이면 온 가족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매년 한 번씩 열리는 교회 연합 찬양발표회에 친구들과 함께 참석도 하며 즐겁게 주일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가을, 갑작스런 어머님의 죽음과 아버님의 재혼으로 인해 큰 충격과 슬픔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였지만, 교회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위로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입학하여 동아리 활동을 하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서 억눌려 있던 삶에서 벗어나고자 자취를 하며 교회와 멀어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군생활을 운전병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하던 차와 시외버스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저는 그 일로 군 영창대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던 두려운 그 시간에 저는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외로울 때에 교회 선생님의 도움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도우셨던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신실한 신자인 선임병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선임과 함께 다시금 예배를 드리며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깨달아 학창 시절 삶을 낭비하며 하나님을 떠난 삶을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통사고에 관한 사실관계가 잘 가려져서 저는 군 영창에 가지 않고 무탈하게 전역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결혼하고 근무지를 광명으로 옮기게 되어 2003년 안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아내의 권유로 열린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열린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예배가 끝났음에도 자리를 뜰 수가 없을 만큼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설교 시간만 2시간가량 되었음에도 흐트러짐 없이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눈물로 기도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해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통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고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에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였고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고백하며 마치 사막에서 샘을 발견하듯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이 넘쳤고 신앙세계를 새로이 보는 듯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에 부서를 옮기게 되었는데 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업무가 많아 10시 전에 퇴근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말, 휴가, 공휴일을 온전히 회사에 반납한 채 고단한 직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날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영적, 육적으로 지쳐가기 시작해 예배뿐 아니라 수련회, 아웃리치, 교구 행사 등 교회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버겁게 느껴져 행여나 시간이 허락되더라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몇 년 간 해외공장 건설 업무를 하였기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받은 은혜를 유지하기는 어려웠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밥 먹으며 한두 잔 마시는 반주에 의지한 채 견뎌내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6년도에 6개월을 해외에서 근무하고 귀국하여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공항까지 마중 나왔던 아내는 차 안에서 낙도 아웃리치를 함께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 시기에 아내는 열린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저의 신앙을 위해 염려함으로 기도하면서 낙도 전도를 통해서 제가 신앙적 회복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한 것이었습니다.) 새생명전도학교 교육도 받고 농어촌 전도도 해 봤지만, 막상 처음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무엇보다 오랜 시간 해외에 있다 와서 쑥스러움과 어색함이 느껴져 회사 출근을 핑계로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속적인 아내의 권유를 마지못해 승낙하고 준비모임에 참여하였습니다. 준비모임에는 연세가 지긋하신 권사님들께서 낙도 아웃리치를 위해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하고 계셨고 그 모습에 기대감 없이 참여한 나 자신이 부끄러워 권사님들과 함께 힘써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하게 된 아웃리치에서 복음을 외면하며 자신들의 삶에 만족을 누리고 있는 낙도 주민들을 보며, 삶의 만족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고백하며 힘써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길 다시 결단하였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시139:9-10). 이렇게 주님의 손은 제가 힘들고 두려울 때마다 인도해주셨고 외면하고 잊어버릴 때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셨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기독교에서, 신앙의 방황은 열린교회에서 끝내십시오." 새가족들을 향한 담임목사님의 권면의 말씀처럼 열린교회에서 제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났습니다. 선포되는 말씀마다 비수로 가슴을 찌르듯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동시에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기쁨이 샘솟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하신 주님께서 그런 유혹과 죄로부터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성도들을 허락해 주셨기에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평생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남준
시무장로	김남근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박찬동 김원효 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 성경열 김춘경 이영춘
은퇴장로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부목사	김성구 박재헌 김동기 이성도 류요한 박철웅 최성기 명성인 권경철 김태영
협동목사	정창욱 김성진
전도사	곽혜정 조희숙 정경아 강성경 최선미 김현희 김미영 박숙현 이지연 신하경 양승희 김수민 이월순 정명원 홍명철
교육전도사	김민성 김민정 김진산 이두호 최영광

파송선교사

A국: 4units, **B국**: 1unit, **C국**: 1unit
말레이시아 : 양연식 & 전희선
에스와티니 : 황아론 & 양진영 / 박현철 & 박상유
인도네시아 : 신동진 & 정지현
국내 디아스포라 : 정진학 & 손원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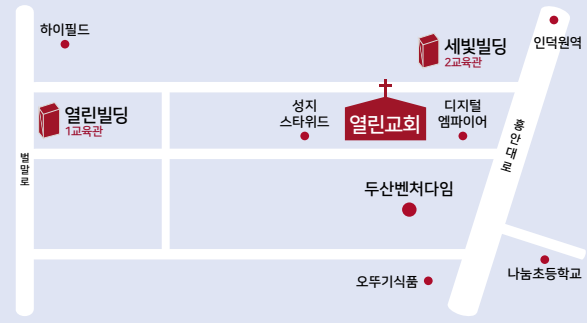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8시 (본관 3층 예배실)
	2부	오전 10시 (본관 3층 예배실)
	3부	오후 12시 (본관 3층 예배실)
	4부	오후 2시 (본관 3층 예배실)
*주일오후예배		오후 4시 10분 (본관 3층 예배실)
교회학교	영아부	오전 10시 / 12시 (별관 1층 교육실2)
	유아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2층 교육실1)
	유치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3층 교육실2)
	유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3)
	초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4)
	소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2)
	중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1)
	고등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4층 교육실3)
	사랑부	오전 10시 (별관 1층 교육실1)
새벽기도	*1부	오전 5시 (별관 1층 교육실2)
	2부	오전 6시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섬김기도		오전 10시 30분 (본관 1층)
금요기도		오후 8시 (교구별 지정장소)
*사랑부 토요교실		오전 10시 (별관 1층 교육실2)
*소망교실		주일 오후 1시 (세빛빌딩 4층 소망부실)
중국인예배 中国人礼拜		오전 11시 30분 (세빛빌딩 5층 중국실) 上午 11时 30分 (世光大厦 5层 中文室)

(* 코로나19 감염위험의 최소화를 위해 시행하지 않고 있는 모임)

찾아오시는 길

열린교회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4번출구 800m, 평촌역 3번출구 700m 거리에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열린교회에 오시려면

서울/과천 777, 441, 502, 540
안양 8, 8-1 **군포** 540, 8
성남 103(인) **구로** 51(인) **수원** 777
* (인) : 인덕원에서 하차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4번 출구 앞에서 버스를 이용, 평촌동주민센터에서 하차하여 진행방향으로 100m 앞으로 오신 후 우측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열린교회가 있습니다.